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RIDDLE OF THE SEA (HET RAADSEL VAN DE ZEE)

가제 : 저주받은 해적선에서

저자 : Jonne Kramer

출판사: Billy Bones

발행일: 2019년 7월 / 영국: 2012년 봄 예정

분량 : 255 페이지

장르 : 모험



*** 2019년 네덜란드 최고의 아동 도서로 선정된 책**

*** 2019년 Hotze de Roosprijs (네덜란드 내 최고의 아동 도서 데뷔작을 선정하는 시상식) 시상식 후보작**

라비안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어부인 라시가 자신의 열두 번째 생일을 맞아 집으로 오기로 한 날 아무 소식이 없자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라비안은 가장 친한 친구 마빈과 아버지를 구하러 저주 받은 해적선인 '프리바티어'로 가기로 다짐했다. 폭우, 바다 괴물 및 신비한 섬이 가져다 주는 스릴과 재미가 가득한 해양 모험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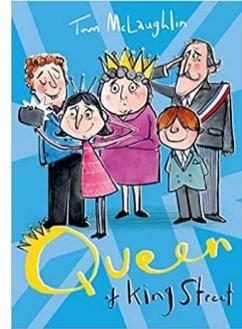
마빈은 라비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갈매기이다. '귀머거리 던컨'이라고 불리는 이 항구에는 침식된 벽이 하나 있었는데 마빈이 그 위에 있는 동안 라비안은 그 벽 뒤에 숨어 있었다. 라비안은 그 벽 틈 사이로 항구를 몰래 보고 있었다. 라비안은 안개 사이로 배 한 척을 보고 있었는데 배에서 검은 형체의 한 남자가 소리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판자 위로 큰 나무 상자를 올리며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며 소리를 질렀다. 라비안은 이 모든 상황이 아버지인 라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 할 수 있었다. 라비안은 배에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들킬 위험 또한 감수 해야 했다. 라비안은 마지막 상자가 널빤지에 실려 배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마빈에게 저 상자를 밀고 있는 남자가 바로 '귀머거리 던컨'일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마빈 역시 동의를 뜻하는 고갯짓을 했다. 라비안은 귀머거리 던컨이 항구 사무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빠른 속도로 배 가까이에 갔다. 라비안은 이 배가 다시 출항하기 전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 마저 너무나 부족해 보였다. 라비안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 배 가까스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 배에서

나갈 수 있도록 구해달라고 소리 치는 아버지 라시의 목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배는 생각 보다 훨씬 더 큰 배였다. 라비안은 태어나 이렇게 큰 배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라비안은 부딪기에 부딪히는 강렬한 파도 소리와 해초들이 풍기는 차갑고 비릿한 냄새를 맡으며 갑판으로 가는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갔다. 라비안은 다시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돌아보았고 귀머거리 던컨 외에 검은 형체로 보였던 그 남자 또한 이제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이 배에 있는 사람은 오직 라비안 혼자였고 마빈은 좁고 습한 항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비안은 조심스레 아빠를 불러보았다. 그러자 다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라비안은 아빠에게 곧 데리러 간다고 소리쳤지만 배가 파도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라비안은 원래 아빠의 작은 어선에 올라 타는 것조차 무서워했던 아이였다. 하지만 그는 지금 저주받은 해적선에서 아빠를 구해내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었다. 얼마 후 라비안은 또 다른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들었고 그 외침에 대답을 해야 할지 숨어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에게 누구인지 물었고 자신은 라비안이며, 어부인 아빠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낯선 목소리는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어깨까지 흘러 내린 금발 머리를 가진 라비안 또래의 어린 소년이었다. 라비안은 자신만큼이나 어린 소년이 이 해적선에 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카스라는 그 소년은 라비안의 사정을 듣고는 이 배에는 자신과 반란을 일으킨 혐의로 배에 묶여 형벌을 받고 있는 늙은 해적 뱅크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비안은 분명히 라비안과 아빠만이 알고 있는 아빠의 노래 소리까지 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어린 나이에 이런 해적선에 있는 그 낯선 소년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때, 라비안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카스는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며 이 배에는 반드시 라비안이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자신을 굳게 믿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소년의 말에 따르면 이 배는 소문 대로 저주에 걸린 배였고 이 배에는 라비안의 아버지가 절대 있을 리가 없었다. 심지어 마빈조차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라비안의 말에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라비안이 아빠를 부르며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달려가자 카스가 다시 한 번 막아 섰다. 라비안은 몇 분 후, 천둥 번개 비와 함께 아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했고 바다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는 마빈을 불러 함께 카스가 안내하는 곳으로 향했다. 라비안의 아빠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라빈은 카스와 특별한 우정을 만들어가고 심술 맞은 해적 뱅크와 함께 한번 들어서면 절대 나갈 수 없는 저주 받은 이 해적선에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해양 모험을 떠나게 된다.

<저자 소개>

존 크레이머 (Jonne Kramer)는 런던에서 문예 창작을 공부했다. 그녀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창의적인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다. 이 소설은 배와 물에 대한 두려움 가진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데뷔 소설이다.

제목 : QUEEN OF KING STREET
가제 : 킹 스트리트로 이사온 여왕님
저자 : Tom McLaughlin
출판사: Barrington Stoke
발행일: 2020년 10월 15일
분량 : 104 페이지
장르 : 유머



* “내가 여태 읽은 책 중에 가장 웃긴 책이다.” (저자의 전작 『Prime Minister』에 대한 서평)– 「가디언」

* “독자들이 이 책을 손에서 내려 놓을 유일한 이유는 웃다가 책을 떨어트릴 경우일 것이다.” (전작 Billionaire 에 관한 서평)– 「북 트러스트」

몽고메리가 사람들은 왕실 가족으로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이 가족의 일원인 버티는 눈 앞의 욕심 때문에 가족의 재산을 홀라당 날려버리게 되었고 왕가는 더 이상 버킹엄 궁에서 살 수 없는 운명을 맞이 했다. 현실의 비애와 유머와 따뜻함이 어우러진 이야기이다.

버티는 안경을 집어 들고 손에 있는 카드를 훑어본 다음 담배 연기가 무겁게 깔려 있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이 곳은 시간과 돈이 너무 많아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장소였다. 다시 말해 이 곳은 엠파이어 클럽이라는 곳으로, 한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에 대해 떠들며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거나 노름판을 벌이는 곳이었다. 이 엠파이어 클럽에서는 모두들 버티를 '불운의 사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버티가 지난 57년 평생 동안 폴로, 배드민턴 등 그 어떤 게임이나 경기에서 단 한번도 이겨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버티는 보통의 이런 운 없는 작자들과는 달리 돈도 많고 친구도 많았으며 심지어는 버트랜드 몽고메리 왕자이자, 스코틀랜드 공작이었고 그의 누나는 영국의 여왕인 어마어마한 가문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가족 내에서조차도 역시 2인자로 누나가 왕관을 쓰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동안 카드 게임이나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버티는 다시 카드를 바라보며 이번만큼은 불운이 아닌 행운을 거머쥐게 되었다고 확신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은행 재산과 사업체, 건물, 작위 등을 한꺼번에 다 이 게임에 다 걸었다. 그러나 버티는 이번에 오히려 인생 최대의 불운을 맞이 했고 최악의 패배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얼마 후 버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버티는 모든 것이 꿈쩍한 악몽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자신의 곁에 있는 누나 즉 여왕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왕은 큰 소리로 그에게 일어나라고 외쳤다. 버티는 일어나 방을 둘러 본 후 자신이 침실이 아니라 여전히 엠파이어 클럽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가 꿈 악몽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것이다. 클럽의 전화를 받고 부리나케 달려온 여왕은 버티에게 이제 왕가는 모든 재산을 잃었으며 여왕인 자신조차도 이 어이 없는 불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수상뿐이었다.

여왕은 버티를 데리고 수상에게 찾아갔고 버티를 상대로 이긴 사람인 진저라는 이에게 3 천만 파운드만 주면 적어도 왕가 자체는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수상은 가뜰이나 왕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자신과 사이도 좋지 않은 여왕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쓸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였다. 여왕은 재빨리 승리자 진저에게 영국의 왕이 되고 싶은지 재차 물었다. 그러자 그는 너무나도 확고하게 그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잃고 집에 돌아온 버티는 이제 전직 여왕이 된 누나 베티의 남편이자 전직 왕자인 조지 및 아내 마고 등 온 가족으로부터 모욕과 폭언 세례를 받아야 했다. 게다가 이제 정신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당장 버킹엄 궁을 떠나 내일이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버티는 방을 둘러보며 돈이 될만한 것들은 다 모았고 베티와 조지는 수중에 넣을 수 있는 현금이라는 현금은 다 모으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왕가 가족들은 단 한번도 스스로 돈을 다루어 본적이 없었고 물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버티는 가진 액수를 센 다음 돈에 맞는 집을 찾기 위해 스마트 폰을 켜다. 하지만 왕가 사람들 눈에는 죄다 너무 작고 볼품 없는 집들뿐이었다. 버티는 마침 킹 스트리트의 한 집이 자신들이 가진 액수와 맞아 떨어지는 집임을 발견했다. 그 집은 방은 세 개 뿐이었지만 마침 이튼 학교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신의 아들 해리가 다닐 한 학교와도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버티는 바로 그 집을 사버렸다. 하지만 이사 역시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베티는 이미 새 집 근처에 몰려든 취재진들을 상대하느라 지쳐버렸고 이웃인 위니가 그녀를 찾아와 환영의 선물을 건넬 때 평소처럼 이삿짐을 옮겨달라는 명령을 했다가 괜히 퇴짜를 맞는 바람에 얼굴만 붉어졌다.

한편, 해리 역시 책에서나 본 적 있는 ‘버스’라는 것을 타고 교장의 지시에 따라 이튼 학교를 당장 떠나 다른 공립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는 사실에 얼이 빠져 있었다.

일평생, 여왕, 왕자, 왕실의 사람들로만 살며 아무런 경력도 기술도 없는 몽고메리네 가족들은 이제 고단한 소시민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마을 이웃들 역시 그들에게 배타적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현실에 적응하는 중대한 과제가 생긴 것이다. 이들은 과연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저자 소개>

톰 맥러플린 (Tom McLaughlin)은 팔머스 예술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한 후 Western Morning News에서 정치 만화가로 일했다. 그후 그는 일러스트북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책은 다. 그는 그림책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풀 타임으로 글을 쓰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10여개 언어로 번역 출판 된 『Accidental』 시리즈이다.